

< 연세대학교 2013 인문계열 문제 1번 >

세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이며, 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가)는 자연물인 매화를, (나)는 인공물인 무량수전을, (다)는 르네상스 여성을 대상으로 논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의 판단 준거인 인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다.

(가)는 인위를 부정하며 자연적 상태 그대로 둘 것을 논한다. 필자는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화를 가지치는 등의 인위를 가하는 것을 비판한다. 필자가 매화에 묶인 끈을 풀어주고 순리대로 온전하게 해주어야 하는 점을 통해, 인위적인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삼아 자연적인 것을 해침을 경계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적 인위를 긍정한다. 필자는 인공적 건조물인 무량수전이 대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아름다움을 논한다. 이를 갖출 것만 갖춘 필요미라고 칭하며, 산의 능선과 석축의 각도가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잔재주에 기우는 것을 경계함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졌을 때의 인위를 조건적으로 긍정하며 아름답다고 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는 인위를 긍정한다. 여성에게 아름다움의 일종인 우아함을 요구하며, 우아함은 인위를 통해 완성됨을 논한다. 주체의 계산과 연기로써 아름다움을 연출하되 자연스러워보일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인위적 아름다움과 자연적 드러냄이 모두 인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제시문은 인위의 드러냄을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가)는 인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나)와 (다)는 인위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인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지의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나)는 인위의 드러남을 긍정한다. 자연물은 자연적인 대로, 인공물은 인위적인 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 결과로서 아름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다)는 인위의 드러남을 부정한다. 아름답기 위한 인위적 노력은 필요하나, 타인의 시선에 꾸민듯해 보이는 것은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인위의 드러냄에 있어 논지가 대비된다.

(1031자)

< 연세대학교 2013 인문계열 2번 >

(라)는 자연적 상태인 다이아몬드 원석과 인위적 상태인 물방울 모양의 세공 다이아몬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라)는 다른 세 제시문의 서로 다른 관점을 근거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원석 그대로의 모습을 해친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순리를 거스르고 인위를 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세공해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높은 값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가)의 관점에서 부정의 대상이 된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원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 잔재주 없이 편안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세공석은 물방울의 자연적 곡선을 본뜬으로써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이루고, 대칭성을 통해 비례의 상쾌함을 드러낸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원석은 순리로서 세공석은 조화로서 아름다움의 대상인 것이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인위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원석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기 위한 아무런 궁리나 노력이 없는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지만, 세공된 상태의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 인위를 가한 것으로서 긍정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평가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가)의 논지는 제한된 사고의 편협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인위적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러한 가능성조차 무조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다)의 관점에서, (가)의 논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은 기교와 노력을 통해 섬세하게 갈고 닦아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가)는 그러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